

창세기에 기록된 인류문명의 발상지

비손 강, 기혼 강, 히데겔 강, 유브라데 강에 담긴 영적 의미

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.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천지창조 이후에 만드신 네 개의 큰 강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네 강의 위치를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습니다.

이 외의 큰 강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만들어졌지만 네 개의 큰 강은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치를 잡고 만드신 것입니다.

수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형이 변하면서 네 강의 위치도 달라져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만은 변함이 없습니다.



하나님께서 만드신 네 강은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 중 세 곳과 겹칩니다. 바로 첫째 강 비손 유역은 인더스 문명, 둘째 강 기혼 유역은 이집트 문명, 셋째와 넷째 강 즉 히데겔과 유브라데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.

◆ 네 강의 근원은 에덴에서 발원

“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” (창 2:10)

6일 천지창조 역사 중 둘째 날 지구를 덮고 있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생겼습니다. 물은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지요. 궁창 아래 물은 창조 셋째 날에 지구의 바다를 이루고 궁창 위의 물은 둘째 하늘로 옮겨졌는데 바로 이 물이 에덴의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습니다.

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에덴동산을 두루 돌아 흐릅니다. 그런데 네 강은 에덴동산이 아닌 지구에 있습니다. 둘째 하늘에 옮겨졌던 물이 다시 지구의 네 곳으로 쏟아져서 큰 강을 만들었지요. 일반적으로 계곡의 가느다란 물줄기들이 여러 개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또 여러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룹니다. 그런데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 영향을 준 네 강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하나님께서 지구에 네 강을 만드실 때에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에덴의 강의 근원된 물이 네 지역으로 쏟아지게 하셨습니다.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성경에 나오지요. 바로 노아 홍수 때에도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둘째 하늘의 물이 지구에 쏟아졌습니다. 그때는 지구의 전역에 하늘이 열려 40일간 비가 내렸지요. 그 결과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말았습니다.

하나님께서 홍수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 이끌어 들이신 후 지구에 이 네 강을 만드셨습니다.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무수한 세월을 지냈지요. 따라서 네 강의 역사도 무척 오래 되었으며 인류 문명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.

◆ 첫째 강 비손과 인더스 문명

“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” (창 2:11-12)



늘날의 인도 부근입니다. 인도는 인더스 강 유역에 아시아와

‘비손’의 문자적 의미는 ‘풍족하게 흐른다’입니다. 이 안에는 ‘대륙과 대륙을 연결한다’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. 하월라는 오

유럽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. 옛날 동서통상로였던 실크로드도 이 지역에 걸쳐 있지요. 또한 ‘하월라 땅에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’고 했는데 이는 정금과 보석과 귀한 향료가 산출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장차 우상숭배의 온상(溫床)이 될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.

인도에서 불교, 힌두교, 자이나교, 시크교가 발생했는데, 이 종교들은 금과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. 인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 개나 된다고도 합니다. 비손 강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흐르는 매우 큰 강이었기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우상숭배가 만연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에 큰 강을 만드셨습니다. 아무리 많은 신이 생겨나도 인생들이 참 하나님을 찾고 섬기길 원하신 것입니다.

◆ 둘째 강 기혼과 이집트 문명

“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” (창 2:13)



것을 미리 아셨습니다. ‘구스 온 땅에 돌렸고’ 했는데,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스는 아프리카에서 나일 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보다 광범위합니다.

오늘날 이 지역에는 나일 강이 흐르는데,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나일 강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바로 성경에 나온 기혼 강에 해당합니다. 현재 강의 모양은 무수한 세월이 흘러 퇴적물이 쌓여 삼각주라는 지형이 만들어졌는데, 매우 기름진 땅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깃들여 살 수 있으며, 농사 짓기가 좋고, 민물이 풍족하면서도 바다와도 접해 있습니다.

이 유역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있으며,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있지요. 또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. 대표적으로 피라미드와 �핑크스를 들 수 있습니다.

◆ 셋째 강 히데겔, 넷째 강 유브라데와 메소포타미아 문명

“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” (창 2:14)

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. 히데겔의 문자적 의미는 ‘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’입니다. 그런데 이 안에는 ‘척박하다, 방해하다’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이는 강 유역에서 발생한 나라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.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 터키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거쳐 페르시아 만으로 빠집니다.

‘히데겔이 앗수르 동편으로 흐른다’고 했습니다. 강 상류를 중심으로 BC 3천 년경에 이미 번성했던 고대 국가가 바로 앗수르입니다.

역사를 살펴보면, 히데겔 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.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고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지요. 그런데 오늘날도 티그리스 강이 있는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습니다. 지금은 바로 이라크가 있지요.

유브라데의 문자적 의미는 ‘맛이 달다’입니다. 이 안에는 ‘풍요’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평야를 만들었습니다.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‘초생달 옥토지대’라고 부릅니다. 이런 지형적인 특색으로 인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고, 이 문명은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풍요 속에 놀랍게 발전합니다.

또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가 이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. 석유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중요한 자연재원으로 인식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까지 내다보고 아셨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풍족한 석유 자원으로 인해 7년 환난 동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(계 9:14-15).

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. 큰 강이 두 개나 인접해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광활하게 형성되었고, 석유자원도 많이 매장되게 하셨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악함으로 인해 복(福)을 화(禍)로 바꾸고 말았지요.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고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(창세기 강해 참조).

